입법 평가 권고만 하면 끝?… 후속 조치 필요

도의회 입법평가위 최근 3년간 237건 조례 실효성 평가
개정 권고 83건·통합 권고 16건·폐지 권고 2건 등 결정
도의회 "2022~2024년 이행 실태 분석 체계적 관리 계획"

2020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년 11월 당사국총회 개최지가 UAE로 결정돼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022년 제2차 회의에서 이 점을 짚으며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조례는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자치법규의 시행 효과, 입법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평가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 모양새다. 이에 도의회가 최근 입법 평가 결과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입법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0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측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입법 평가 결과 이행 상황을 수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입법평가위원회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평가 조례'에 근거한다. 입법 평가는 별도의 분석 지표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가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모두 8차례로 총 237건의 조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현행 유지 33건, 일반 정비 84건, 개정 권고 83건, 통합 권고 16건, 폐지 권고 2건, 기타 19건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조례에 대한 통합, 개정 등이 추진됐지만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입법 평가가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는 만큼 심의 결과 조치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입법평가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는 2023년 제2차 회의 당시 집행부에서 폐지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현행 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월 말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받고 있다"며 "그 결과를 분석해 독려도 하고 이행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12대 도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는 총 727건(제정 205, 개정 522)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제출 220건, 교육청 제출 46건, 의원 발의 461건으로 나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줄 맞춘 물질 10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아직은 시린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여성 어업인 행복이용권 온라인 신청 도입

도, 올해 2억4000만원 투입
1200명에 문화 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여성 어업인 1200여 명에게 1인당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 여가 활동비(여성 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138명에게 총 2억276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 지역 여성 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 어업인이다. 다만 여성 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작년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존처럼 거주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쯤부터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말까지 서귀포시 읍면동

서귀포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25년도 사업기간(2024년 11월 1~2025년 10월 31일)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가 지급 대상이다.

시는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유기 지속)별로 농가당 30ha 이내에서 품목별 ha당 57만~14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81농가·167ha에 1억47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한도가 확대돼 면적은 기존 5ha 이내에서 30ha 이내로, 유기지속 지급금액은 ha당 35만~65만원에서 57만~78만원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친환경 인증면적은 2024년 기준 1310ha·451농가(유기농 750ha·191농가, 무농약 560ha·260농가)로 집계됐다. 문미숙기자

중·장년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한다

서귀포시, 네트워크 활용·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강화

서귀포시가 중·장년층 1인가구의 위기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고체계 강화에 나선다.

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민관 신고체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채널 '서귀포 희망소도리'의 시민 가입과 위기가구 제보를 활성화하고, 우체국 집배원(70명)과 상하수도검침원(19명)을 활용한 신고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희망소도리 가입자 519명이 위기가구 78가구를 제보해 11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도 추진한다. 매년 상·하반기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매니저를 활용한 여관·모텔 등 거주 가구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47종 빅데이터(행복e음)를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도 연 6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724가구를 대상으로 한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서는 480가구를 발굴해 474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복지 매니저를 활용한 여관·모텔 거주 285가구를 조사해 157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입수 위기정보 활용조사에서도 2941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한 것도 5050건에 이른다.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안부 확인을 지원하는 스마트 플러그 사업, 빅데이터 안부확인 사업(한전, SKT 협력), 건강음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098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확대한다.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동모금회 기탁금을 활용한 위기 청·장년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청춘 돌봄 사업'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금은 지난해 2인 기준 117만8000원에서 올해 120만5000원으로 올린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냉·난방비 10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인 홀로 사는 노인이다. 에너지바우처와 긴급 지원사업 등 관련 유사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은 연 1인당 10만원의 냉·난방비를 받는다. 에너지드림 바우처 카드로 주유소, 가스충전소, 도시가스, 유류판매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냉·난방 방식이 전기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가정방문, 현장상담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트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몬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트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포트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놀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외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항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